

□ 질의내용

□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통합에 대응하는 우리대학의 전략은?

2021학년도 입시에서 상당수 대학의 미충원 사태는 남의 일 같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며 2021학년도 전국 대학 추가모집 인원은 작년에 비해 2.7배가량 늘어 16년 만에 최대 규모였고, 추가모집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이 속출하였고, 일부 거점 국립대에서도 신입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이며, 이로 인하여 신입생 미충원, 대학 재정 부실, 경쟁력 약화, 대학간 통·폐합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벚꽃이 피는 순으로 망한다는 말을 들어보셨겠지요, 지방대학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대응전략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지어 일부 국립대는 이미 통합을 하였거나 통합을 검토하고 있고, 경쟁력이 없는 일부 사립대는 폐교 수순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충원은 주변 대학과 비교할 때 준수한 실적을 거두었지만, 당장 올해, 5년 후, 10년 후 신입생 충원 결과와 우리 대학 경쟁력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약화, 대학 통합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이며, 향후 우리대학의 10년 후 모습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10년 후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재임기간 중의 로드맵(청사진)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대학의 위기에 대한 직원 선생님들의 우려에 깊게 동감합니다. 먼저 4년 로드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 2년 과제는 입학 자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향후 3년간 입학자원은 6만명, 우리대학 입학정원 50배가 줄어듭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2년이고 신입생 확보의 관건은 대학의 지명도입니다. 2년 안에 지명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주목받는 대학”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최초 5G+ 환경을 활용한 국제행사 이벤트 등 대학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강점이던 취업률을 80%로 회복시키겠습니다. 학생성공(입학+학생+취업) 부총장을 두어 이를 전담 관리하겠습니다.

입학 다음은 재정입니다. 우리대학은 행정조직이나 공무원 수가 매우 적습니다. 줄어드는 등록금 수입 대비 증가하는 인건비,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대학 위상을 높이고 대학 고유의 재정사업을 확보하여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전반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후반 2년에 실현시켜 “백년가는 대학”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입학과 재정 문제를 해결함과 병행하여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앞서가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브랜드를 만들어 우리대학의 독자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저의 기본방향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대학의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자강론입니다. 큰 덩치보다 빠른 대응력을 가진 작은 조직이 유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에 가능한 접근법입니다. 4년 노력이 성공하면 10년 후 우리대학은 지역거점과 대적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국립대 통합문제는 정부 정책방향에 의해 크게 영향받을 것입니다. 통합의 시기에 우리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입학과 재정 문제 해결 못하면 4년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흡수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 독자 생존에 성공하는 경우에도 통합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합은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구성원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대비할 것입니다.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통합공동대응TF」를 출범시켜 흐름을 파악하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져가는 지계를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대학통합 논의의 장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금오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기호2번 곽호상 올림